

‘혈세 먹는 하마’ 잡기...재협상·소송 ‘12년 분쟁’

광주시·맥쿼리 질긴 악연

맥쿼리한국인프라투자회사(이하 맥쿼리)는 2002년 12월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설립됐으며, 국내 최대 규모의 유일한 상장 인프라 펀드다. 광주와 인연을 맺은 것은 지난 2003년 3월로, 이 때 제2순환도로 1구간의 관리운영권을 매입했다. 이후 3-1구간의 관리운영권까지 갖게 됐다.

◇맥쿼리 1구간, 3-1구간 2개 자산 2028년, 2034년까지 관리운영권 소유=당시 1구간(5.6km) 공사와 관리운영까지 맡았던 대우건설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맥쿼리에게 관리운영권을 넘겼다. 이후 맥쿼리는 자신들이 100% 주식을 가진 자회사(주)광주순환도로투자에 주식 331억원, 선순위 대출 1070억원, 후순위 대출 852억원 등을 투자했다. 사업시행기간은 지난 2001년부터 2028년까지다.

2016년 12월 광주시와 문제가 된 협상변경을 통해 최소수입보장(MRG) 조항을 대안적 투자비 보전 방식(MCC)로 변경했다. 투자약정에 기준으로 맥쿼리 자산 중 15.4%에 해당한다. 변경 전에는 12.8%였다.

맥쿼리는 3-1구간(3.5km)의 사업시행자인 광주순환(주)에도 주식 및 선순위 대출의 형태로 투자했다. 75.0% 주주이며, 총투자금액은 438억원이다. 주식 289억원 및 선순위 대출 149억원으로 구성됐다. 이 역시 최초 협상 시 주요 투자자로부터 맥쿼리가 인수한 것으로, 2034년 말까지 관리운영권을 가지고 있다. 여전히 실시협약의 매 사업년도 추정 통행료 수입의 90%를 보장해주는 MRG 방식으로, 광주시가 사업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있다.

맥쿼리의 공시자료에 따르면 2017년 영업이익(EBITDA)이 1구간의 경우 388억2700만원, 3-1구간이 161억1800만원에 달했다.

2002년 62억원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1구간 광주시의 재정지원액은 2701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협약 변경으로 2028년까지 2287억여원을 갚아나간다면 28년간 1구간에 한해 약 5000억원을 투입해야 하는 셈이다.

◇1구간 2003년 자본구조 변경하면서 시와 마찰, 12년간 분쟁=맥쿼리와와 분쟁은 지난 2005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저금리 시대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0~20%의 고금리 차입금을 통해 막대한 이자 수익을 챙겨가는 것에 대한 반발이 높아진 것이다. 시는 2005년 11월 제2순환도로 재정보전 관련 기초 자료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재정보전액 증가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자와의

제2순환도로 1·3-1 구간

2003년부터 관리운영권

이자 장사 年수백억씩 지출

市, 2005년 재협상 추진

2013년 전국 최초 1심 승소

2016년 자본 재구조 협상타결

재협상을 추진했다. 2006년 4월 변호사, 회계사, 금융전문가, 시 실무진으로 협상단 구성해 수익률 조정, 자본구조 변경 및 자금 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배분, 통합 관리 및 운영비 조정 등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1구간에 대해 최소수입보장 수준을 기존 85%에서 80%로 기간을 28년에서 20년으로 천안-논산 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하거나 관리운영권을 시에 매도해 줄 것을 맥쿼리에게 제안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시는 재정지원금 지급을 보류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 144억1700만원을 삭감해줄 것을 시의회에 요청하기도 했다. 강경한 태도는 2년이 지난 2008년 1월 통행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수그러들었다. 맥쿼리가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함에 따라 통행량 증진 대책·재정 확충을 위한 부대사업을 통해 시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2009년 3월에는 요금을 기존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했다.

다시 분쟁이 발생한 시점은 2011년 6월이었다. 감사원이 발표한 ‘최소운영수입보장민자사업 사후 관리실태’ 감사 처분 요구서에서 1구간의 사업자가 임의로 자본금 축소, 후순위차입금 도입 등 자본구조를 변경하고도 자금재조달 이익을 독점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민선 5기 광주시는 2011년 7월 맥쿼리가 자금재조달 계획서 제출을 불응하자 같은해 10월 1구간 자본구조 원상 회복 명령을 내렸다. 맥쿼리는 중앙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2년 7월 광주시가 승소했다.

본격적인 소송전에 들어간 뒤 2013년 2월 광주시가 1구간 1심에서 전국 최초로 승소해 민간투자사업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

맥쿼리가 자기자본비율을 당초 29.91%에서 6.93%로 대폭 축소하면서 10.0~20.0%의 고이자율로 변경해 대주주 출자자(주주)의 이익에만 편승하도록 한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이다. 2014년 1월에는 항소심에서 ‘자본구조 원상회복명령’은 승소하고, ‘이익귀속명령’은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후(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코스타 살게로 센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조는 원상으로 회복하고 그동안의 이익에 대해서는 귀속의 주체와 내용 등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못한 것이다.

시는 왜곡된 자본구조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통해 2013년부터 2028년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될 3479억원의 이자를 절감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관리운영권을 매입하고 통행료를 대폭 낮춰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돌아갈 수도 있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그러나 2015년 9월 민선 6기 광주시는 1구간 ‘자본구조 원상회복’ 대법원 판결 시까지 보조금 지급 중지를 유지하되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소송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협상’도 병행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이후 변호사, 회계사, 교수, 맥쿼리 측이 소개한 재구조화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재정경감대책단을 구성하고, 2016년 6월 맥쿼리와의 협상을 타결했다.

그러나 지난 3월 6일 경찰이 1구간 협약 변경 과정에서 당시 실무를 맡았던 공무원이 윤장현 광주시장 캠프관계자인 협상 중개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하면서 협상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청와대 “김정은, 답방 조금 늦어지더라도 약속 지킬 것”

“문대통령도 연내에 서둘러 않고 순리대로 풀길 원해”

청와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을 계속 추진하지만, 비록 연내를 조금 넘길 시점이라도 김 위원장이 답방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순방을 수행 중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김 위원장을 1년 넘게 지켜봤는데 그 언행을 보면 자기가 예기한 것은 꼭 약속을 지켰다.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질 수는 있어도 지금까지 자기가 말한 것을 안 지킨 것은 없는 것 같다”며 “연내 서울 답방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간이 지연돼도 김 위원장 본인이 한 말이 있기에 답방 시기가 연내가 아니어도 상관없는 것 아닌가”라며 “문 대통령도 초조하게 서둘러 하지 않는다. 연내에 반드시 와야겠다는 게 아니고 순리대로 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한미정상회담은 지난달 30일 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공동노력에 추가적인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한국 정부가 김 위원장 연내 답방을 본격 추진할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이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 실현 가능성에 대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북한의 의중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이 관계자는 “우리뿐 아니라 미국도 회담 결과에 대해 굉장히 만족해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정상 간 케미는 매우 좋다. 북미 정상도 한 번 만났을 뿐인데 서로가 케미가 괜찮다고 느끼는 것 같다”며 “특히 과거 방식과는 다르게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인 틈나온 방식이 정말 좋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가급적 빨리 열려야 한다는 데 생각이 일치했다”며 “1차 회담 때보다

진도가 더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미 간에도 소통은 굉장히 정중하게 잘 되고 있다”며 “북미가 실질적으로 대화할 게 반년밖에 안 되지만 그동안에도 초기와 지금은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다. 조금씩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고 점점 더 좋아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촉에도 실무진 판단에 따라 북미협상이 지지부진한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실무진 얘기를 많이 듣지만, 자신의 판단과 소신이 있어 오히려 참모들을 이끄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력이 없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다는 문 대통령 말도 전혀 믿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는 (이전 정부와) 굉장히 다른 것 같아 우리 정부로서도 좋은 기회를 맞았다”며 “미 중관선전 결과도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기에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추진력도 나쁘지 않을 것이며, 한반도 문제 해결 모멘텀은 계속 좋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대표 종합여행기업 롯데관광 LOTTE TOUR

국내 출발 최대 크기! 급이 다른 1만톤급 세레나호

당신의 바다는 어디인가요?

광주시사 1688-1104
광주첨단지점 062)974-3050

대한민국 크루즈 선도 기업

- ▶ 대한민국 크루즈 승객 1위 기업
- ▶ 국내유일 10년 연속 크루즈 전세선 운영
- ▶ 2017 아시아 크루즈 어워드
- ▶ '아시아 최고 크루즈 여행사상' 최초 수상

• 1만 4천톤 • 전장: 290m • 전폭: 35m • 수용인원: 3,780명 • 승무원: 1,100명

전세선 10주년 조기예약 이벤트

선실우선배정+ 최대 25만원 할인

12월 28일까지 예약 및 완납자에 한함

단체예약 추가할인

8명이상 3만원, 14명이상 5만원, 20명이상 10만원 할인
3/4인실 이용 시 2번째 고객까지만 단체인원 포함

3/4인실 파격가

3/4인실 이용 시 3번째, 4번째 고객 상품가

4월 26일 인천항 출발

인천항·상해·후쿠오카·부산항

한국/중국/일본 전세선 6일

내측 188만원부터 발코니 248만원부터
오션뷰 218만원부터 스위트 328만원부터

5월 1일, 2일 부산항 출발

부산항·속초항·블라디보스톡·사카이미나토·속초항

한국/러시아/일본 전세선 5일/6일

내측 188만원부터 발코니 248만원부터
오션뷰 218만원부터 스위트 328만원부터

5월 6일 속초항 출발

속초항·블라디보스톡·오타루·아이오리·부산항

한국/러시아/북해도 전세선 7일

내측 198만원부터 발코니 258만원부터
오션뷰 228만원부터 스위트 338만원부터

2018 인기크루즈 BEST 3

베스트셀러 / 싱가포르 출항 동남아 크루즈 7일

1,870,000부터 [₩55118 선택관광 포함]

▶ 1/13~ 매주 일요일 출발 • 싱가포르/쿠알라룸푸르/푸켓/싱가포르
• 90일전 예약시 1인 10만원 할인, 동남아시아 No.1 크루즈 일정
• 14만 톤급 로얄캐리비안 보이저호 탑승

선착순 조기예약 20만원할인 지중해 크루즈 10/11일

299만원부터 [₩70/80유로 선택관광 포함]

서부 지중해 (남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 ▶ 1/4~ 매주 금요일 출발
동부 지중해 (그리스/크로아티아/이탈리아) ▶ 3/29~ 매주 금요일 출발
• 유럽 NO.1 코스타 크루즈 탑승, 밀라노 추가 관광 + 일출호텔 숙박

내상에 단 한번 세계일주 크루즈 113일

3,300만원부터 [₩5840 선택관광 포함]

▶ 1/7 [단회 출발확정] • 이탈리아/프랑스/스페인/모로코/브라질/칠레/호주/뉴질랜드 등
• 크루즈 전문 인솔자 동행, 9만톤급 코스타 루미노사호 탑승

가려보내면 크루즈 선실로 및 항구세, 식사요금 등 필수 경비 모두 포함 **가이드/기사경비** [☐] 부분은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기사/가이드 경비(인/자세한 사항 및 일정표는 홈페이지 www.lottetour.com 참고) [인전/전경비] 여행유의 / 여행자재 / 여행수권 / 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c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비자] 필요로 하는 일부 선착순(비행) 있음/없음 상황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음. 선택관광 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미 선택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롯데관광 홈페이지 www.lottetour.com 참고

지역의 경우 비자요금은 상품가에 불포함 [메이팅]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사항으로 지불 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동의를 받은 여행금입금은 고객별 전용계좌로 가능합니다. • 총로딩: 일일여행금 제47회(서울시 중구구 서동로 140 롯데관광빌딩) • 일일여행금 영인보증보험 10억원 가입 • 기해여행 실시에 따른 보증보험 50억원 가입 • 여행관리센터: 1588-8882 • 여행할인: 부산항/속초항 • 최소출발 10명 • 크루즈 2인 1실 사립/무객실 제외 • 교통편: 항공, 버스, 크루즈선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항공기, 열차, 입국, 숙박권 등은 판매일정에 따라 최소수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